

11. 2021 러시아 경제 전망

2021년 러시아 경제 전망

▲ 2021 세계 경제성장 : 4~5% 반등 예상

- 2021년 세계경제 : 반등 흐름이 예상되나, 회복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 코로나 19 상황의 전개 및 백신 치료제의 개발, 보급 시기,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 등에 의해 국가별로 차별화될 전망.
- 2021년 세계경제 성장률 : 4~5% 기록할 것으로 예상.(IMF 5.2%, OECD 4.2%)
- 2021년 세계 상품 교역은 각국 경제활동의 정상화, 제조업 업황 회복 등으로 개선, 해외여행 등 서비스 교역은 검역 및 이동 제한 조치 적용으로 회복 지연 예상.
- 국제유가 : 글로벌 수요 회복과 OPEC+의 점진적 감산 규모 축소로 완만한 상승 전망('20년 42\$/bbl→'21년 46\$/bbl) 코로나 상황 관련 불확실성, 이란 베네수엘라 원유공급 확대 가능성 등이 상승폭 제약 요인.

2021년 러시아 경제 전망

▲ 2021 러시아 경제성장 : 2~3%대 성장률 등 거시경제지표에서의 소폭적 개선 전망.

○ 2021년 러시아 경제 : 코로나 19 감염의 새로운 가속화와 씨름하면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 2020년 말 백신 접종 시작은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임.

- 경제성장률은 2%대 후반~3%대 초반으로 반등, 소비자물가는 목표치(4%)를 하회하는 3.5~4.0% 수준에서 결정
- 국민 실질 가처분 소득은 중기적으로 1.6~1.9% 증가, 소매매출 및 서비스 부문은 각각 4.5%와 5.6% 증가

○ 경기회복 배경

- 미국과 OPEC외 원유 생산 국가들의 OPEC+의 감산 합의 사항 지속적 지원하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45달러로 반등하고, 2020년 러시아의 경기침체(-3.9%) 및 물가상승(4.9%)에 대한 기저효과 고려.
- 국제상품 및 원자재 가격 상승과 경기회복을 위한 각종 정책 조치의 지속
 - 중앙은행은 정책금리(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유지, 재무부는 수용적이고 완화적인 재정정책 추진.
- 한계 : 경기 반등은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경직성(과도한 에너지자원 및 국유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정부의 지나친 경제활동 개입에 따른 효율성 문제 등)에 의해 제한될 것임.

2021년 러시아 경제 전망

거시 경제 지표		단위	2018	2019	2020(e)	2021(f)	2022(f)	
대내 경제	경제 성장률	러시아경제발전부	%	2.5	1.3	-3.9	3.3	3.4
		국제통화기금(IMF)		2.3	1.3	-4.1	2.8	2.3
		세계은행(WB)		2.3	1.3	-4.0	2.6	3.0
		경제협력개발기구		2.3	1.3	-4.3	2.8	-
	물가 상승률(연말)		%	4.3	3.0	4.9	3.7	4.0
	산업생산 증가율		%	2.9	2.3	-4.1	2.6	3.6
	소매매출 증가율		%	2.8	1.9	-4.2	5.1	2.9
	고정자본투자 증가율		%	4.3	1.7	-6.6	3.9	5.3
	실질처분가능소득 상승률		%	0.1	1.0	-3.0	3.0	2.4
	실질임금 상승률		%	8.5	4.8	1.5	2.2	2.3
	노동생산성 증가율		%	2.3	2.1	-2.5	2.3	2.7
	실업률		%	4.8	4.6	5.7	5.2	4.7
	연방재정수지 (GDP대비)		%	2.6	1.8	-4.4	-2.4	-1.0
대외 경제	상품수지	금액	억\$	1,944	1,653	860	1,047	1,144
		GDP 대비	%	11.7	9.7	5.7	6.6	6.7
	경상수지	금액	억\$	1,135	653	299	288	312
		GDP 대비	%	6.9	3.8	2.0	1.8	1.8
	환율 (연평균)		₽/\$	62.5	64.7	71.2	72.4	73.1
	유가 (우랄산)		\$/bbl	69.8	63.8	41.8	45.3	46.6

출처: 러시아 재무부, 중앙은행, 경제발전부, IMF, 세계은행, OECD. 2020년은 추정치, 2021~2022년 예상치.

2021년 러시아 경제 전망 : 경제성장

▲ 2021 러시아 경제성장률 : 2~3% 반등

○ 2021년 러시아 경제 : 코로나 19의 제2차 유행이 없는 상황에서 상반기에 봉쇄조치 완전 해제, 복구가 2021년까지 예상대로 유지되는 등 팬데믹에 대한 긍정적 시나리오가 전개될 경우 양(+)¹⁾의 성장률로 반등세 전망.

- 경제성장률 : 2020년 2/4분기 저점 기록 후 2021년에는 양(+)¹⁾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v자 형태의 회복세 예상.

○ 2021년 러시아 경제 +성장으로 회복 예상. 상승폭은 2.0%~3.5%로 분석기관에 따라 다소 큰 차이 보임.

- 국제 경제기구 : IMF와 OECD가 2.8%로 가장 높은 반면, EU 집행위원회는 2.0%로 가장 낮게 잡음.

- 러시아 정부와 민간 경제연구소 : 3%이상 성장 전망. 러시아 경제발전부 3.3%, 러시아 중앙은행 3.0~4.0%,

2021년 러시아 경제 전망 : 경제성장

- 8개 기관 2020년 러시아 경제성장률 컨센서스 : 2.9%.
 - 러시아 정부 경제발전부(2020.10월 경제전망보고서) : 3.3%
 - 중앙은행 (2020.10월 경제전망보고서) : 3.0~4.0%
 - 국제금융기구 국제통화기금(IMF, 2020.10월 세계경제전망) : 2.8%
 - 세계은행(WB, 2021.01월 글로벌 경제 전망) : 2.6%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0.11월 세계 경제 전망) : 2.8%
 - EU 집행위원회(2020.11월 세계 경제 전망) : 2.0%
 - 민간연구소 모건스탠리(2020.11월 러시아 경제 전망) : 3.4%,
 - 시티뱅크(2020.10월 러시아 경제 전망) : 3.0%

2021년 러시아 경제 전망 : 경제성장

▲ 2021년 러시아 경제성장 견인 : 국내수요(소비 및 투자)의 확대.

- 가계소비의 본격적 회복으로 소매 매출 5.1%, 서비스 부문 6.7% 증가.
- 고정자본투자 3.9%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완만한 증가 예상. 에너지 기업의 투자 지연, 정부예산의 자본 지출 감소 예상, 2022년 4월까지 OPEC+ 감산 합의에 따른 생산 제한의 지속 등에 기인.

2021년 러시아 경제 전망 : 소비자 물가

▲ 2021 소비자 물가 : 3.7%로 정부 목표치(4.0%) 달성.

○ 202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정부 목표치(4.0%)를 밑돌 것으로 예상.

- 러시아 중앙은행은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 물가 목표를 4%로 고정하는 물가안정목표제 (Inflation Targeting)*를 도입해 운영.
 - 목적 : 통화정책에 대한 민간의 신뢰 확보하고 인플레이션 기대를 낮추고자 함.
- 러시아 경제발전부는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 3.7%, 중앙은행 또한 비슷한 3.5~4.0% 예측.
- 2021년 계획된 재정통합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억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나,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신용정책의 이행으로 그 효과는 제한적.
- 러시아 중앙은행 금융정책은 자산이나 채권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시장에 직접 푸는 양적 완화(QE. quantitative easing)를 선택하기 보다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방식 취함. 서구 및 미국과 같은 유동성 증가에 따른 통화인플레이션은 미미함.
- 러시아 중앙은행의 2020년 양적 완화 규모는 GDP의 0.1%로 독일의 6%, 폴란드 1.8% 등과 비교해 대단히 낮은 수준임.

물가안정목표제 : 중앙은행이 일정 기간 또는 장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물가 목표치를 미리 제시하고 이에 맞춰 통화·신용 정책을 수행하는 방식. 중앙은행은 통화량, 금리, 환율 등 다양한 정보 변수를 활용해 장래의 인플레이션을 예측하고 실제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수렴될 수 있도록 정책 시행. 성과 평가 후 시장의 기대와 반응을 반영하면서 정책 방향 수정함.

2021년 러시아 경제 전망 : 상품 및 경상수지

▲ 상품 및 경상수지 : 상품수지 흑자폭 확대, 경상수지 흑자폭 축소

- 상품 수출 :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러시아 수출품목에 대한 외부 수요 증가로 러시아 수출 회복.
 - 2021년 러시아 상품 수출은 3,546억 달러로 전년(3,213억 달러) 대비 10.4% 증가.
 - 에너지 상품 수출은 1,655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46.7%로 2020년에 이어 연속 50% 이하 차지.
국제 석유시장에서 저가 유지(45\$/bbl), OPEC+ 감산 합의에 따른 석유-가스 수출 물량 제한적 증가 (4.0%)에 기인.
 - 2020년 러시아 상품수출 구조에서 에너지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46.4%)이 처음 50%이하로 떨어짐.
2021년 46.7%에 이어 2022~2023년에도 47%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상품 수입 : 증가 예상되나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
 - 상품 수입은 2,499억 달러로 전년(2,352억 달러) 대비 6.2% 증가.
 - 총수입 80% :기계, 설비, 운송수단 1,121억\$(47%), 화학제품 470억\$(20%), 식료품 285억\$(12%)
- 상품수지 : 수출 확대에 힘입어 2020년 860억 달러에서 2021년 1,047억 달러로 다시 1,000억 달러를 넘어서며, 2022~2023년까지 완만한 증가 추세 지속 예상.
- 경상수지 : 상품수지 흑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로 흑자가 2020년 299억 달러에서 288억 달러로 축소, GDP대비 흑자 비율도 2.0%에서 1.8%로 축소.

2021년 러시아 경제 전망 : 연방재정 I

○ 러시아 정부는 예산 편성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유가를 기준으로 한 재정준칙을 기반으로 향후 3년 예산 편성.

- 러시아 재무부는 균형재정 유가를 배럴당 40달러로 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유가가 40달러보다 높으면 재정수입의 차액을 국가준비기금(NRF)과 국가복지기금(NWF)에 저축하고, 향후 유가 하락 시에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변동성으로 인한 정부지출의 취약성을 줄이고자 함.

○ 2021-2023년 러시아 연방 예산안은 경제발전부가 작성한 “2021-2023년 러시아 연방의 사회-경제 발전 전망(Прогноз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2021 год и на 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2022 и 2023 годов)”의 기본 시나리오에 명시된 거시경제 지표를 근거로 작성.

	2019		2020년(e)		2021년(f)		2022년(f)		2023년(f)	
	10억 루블	GDP 대비%	10억 루블	GDP 대비%	10억 루블	GDP 대비%	10억 루블	GDP 대비%	10억 루블	GDP 대비%
재정수입	20,189	18.3	17,852	16.7	18,765	16.2	20,638	16.6	22,263	16.8
석유가스	7,924	7.2	5,127	4.8	5,987	5.2	6,884	5.5	7,490	5.6
비석유가스	12,265	11.1	12,726	11.9	12,778	11.1	13,753	11.1	14,773	11.1
재정지출	18,215	16.6	22,562	21.1	21,520	18.6	21,885	17.6	23,671	17.8
재정수지	1,974	1.8	-4,709	4.4	-2,755	2.4	-1,248	1.0	-1,409	1.1
비석유가스수지	-5,950	-5.4	-9,836	9.2	-8,742	7.6	-8,132	6.5	-8,898	6.7
우랄산유가(\$/bbl)	63.5		41.8		45.3		46.6		47.5	

출처: 러시아 재무부

2021년 러시아 경제 전망 : 연방재정 II

▲ 연방 재정수지(유가 배럴당 45.3달러 기준) : 적자폭 GDP 대비 4.4%→ 2.4%로 2.0%p축소.

○ 2021년 연방정부의 재정수지는 향후 3년(2021~2023년) 동안 적자 기조를 이어가나 그 폭은 매년 축소될 것으로 전망.

- 2021년 예산편성에서 코로나 위기 대응 관련 유연한 재정운영을 위한 재정준칙(fiscal rules)의 일시적 중단.

예산적자 축소 전략의 일환으로 예산통합을 통해 예산지출을 엄격히 하면서 2023년까지 매년 1조 루블씩 적자 축소.

○ 2021년 러시아 연방 예산수입 : 18조 7,651억 루블(5% 증가), GDP 대비 16.2%.

- 석유·가스 부문에서 연방 예산 수입 : 5조 9,872억 루블(16.8% 증가). 유가 41.8달러 → 45.3달러(8.4% 상승).

• 탄화수소물채굴세 4조 2,128억루블(70%), 수출관세 1조 2,461억루블(20.8%), 탄화수소물채굴추가소득세 6,367억루블,
정제용 원유소비세 -1,084억 루블.

- 비석유·가스 부문의 예산 수입 : 12조 7,779억 루블(0.4% 증가)

• 부가가치세 7조 5,828억 루블로 10.8%, 이윤세가 1조 1,979억 루블로 21.3% 증가.

• 2019년 1월 1일 18%에서 20%로 인상된 부가가치세와 이윤세, 소비세는 비석유가스 부문 세수 증 가장 큰 세목.

2021년 러시아 경제 전망 : 연방재정 II

○ 2021년 연방 예산지출 : 21조 5,102억 루블(9.3% 감소).

- 2020년 대비 증가 항목 : 국가부채 상환(3,069억 루블), 국가경제(1,359억 루블), 치안 및 법 집행(976억 루블), 감소 항목 : 국가행정(2조 563억 루블), 예산 이전(2,211억 루블), 국방(1,957억 루블).

○ 연방 재정수지 : 2조 7,550억 루블 적자(GDP 대비 2.4%)로 2020년 대비 3조 1,268억 루블, GDP 대비 3.1%p 축소.

- 석유·가스 부문의 세수를 제외한 비석유·가스 수지 : 8조 7,422억 루블(GDP 대비 7.6%)의 대규모 적자 기록.
 - 러시아는 석유·가스 부문 세수를 제외한 비석유·가스 부문 수지는 항상 대규모의 만성적인 적자 기록.
 - 러시아 재정수입에서 석유·가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최근 큰 폭으로 하락, 원인은 에너지의 저가격 기조 유지와 OPEC+ 감산합의에 따른 국내 생산 부진.

2021년 러시아 경제 변수 I

▲ 경제성장 하방 압력 요인

-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 : 에너지 자원 중심 경제(산업구조), 낮은 투자 수준, 인구 감소 및 이민 유출 등 민간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활동 제약 : 러시아 정부 지원의 한계, 친 국영 기업 환경, 정부의 시장 개입 확대.
 - 국제 유가는 여전히 러시아 경제의 성과를 결정하는 척도로 작용
- 2021년 러시아 경제는 여전히 에너지 자원 수출 주도형 경제로 국제 원자재 가격 흐름에 민감하게 영향 받으며 변동성이 크다는 문제점 내포. 2021년에도 그 흐름이 우호적이지 않음.
 -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와 유가 폭락을 계기로 푸틴 정부가 총공급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제조업과 혁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구조 다변화와 현대화를 강력하게 추진. 러시아 경제는 최근 그 비중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GDP 20%, 수출 50%, 재정수입 약 30%를 석유 및 천연가스에 의존.
 - 국제 원유의 저가격 지속은 러시아 경제의 펀드멘털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임.
 - 경제 성장 억제, 재정 건전성 악화, 국제수지(무역 및 경상수지) 악화, 외환 및 금융 시장 변동성 확대

러시아 경제에서 에너지-원료 복합체가 차지하는 비중

(단위 : GDP 대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연방 예산	40.7	46.1	49.6	50.2	50.2	51.3	42.9	36.0	39.6	46.4	39.3	28.7
상품 수출	64.5	65.4	67.1	66.6	67.9	66.4	59.6	54.7	54.8	59.1	58.0	46.4

자료 : 러시아 중앙은행, 통계청, 경제발전부

2021년 러시아 경제 변수 II

▲ 국가발전목표 2030에서 나타난 러시아 경제정책 방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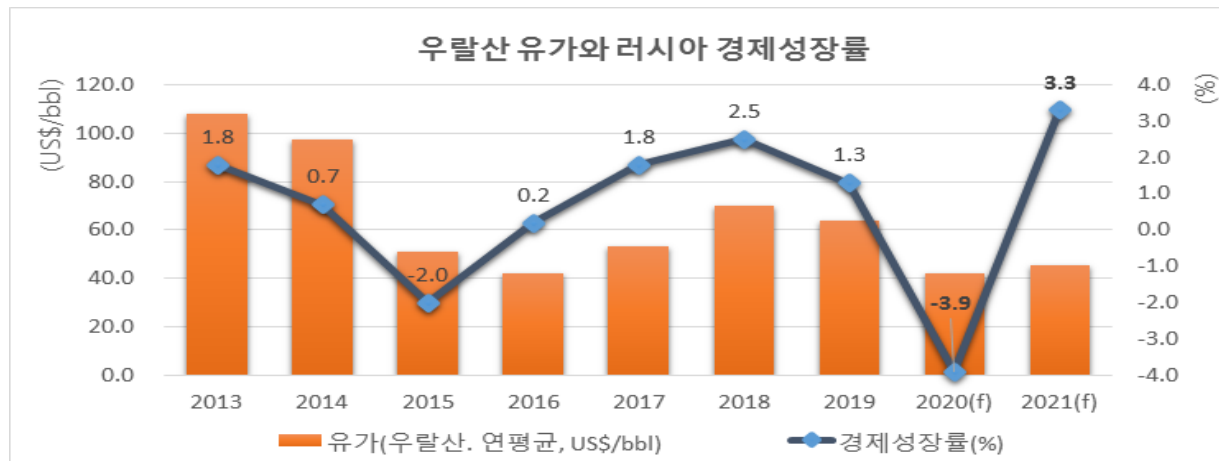
○ 기존(2024)과 유사하나, 양적 경제성장보다는 질적 경제성장에 좀 더 초점을 맞춤.

경제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사회·산업 인프라 확충 및 현대화를 목표로 5개 목표 24개 과제에 총 25.7조 루블 투자.

현재 2%대에 불과한 러시아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임.

○ 2021년 이후 러시아 경제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 요건.

- 외부 환경 극복 여부 : 코로나 19 팬데믹의 장기화 및 재확산 여부와 이에 따른 세계 경기 변동, 국제원자재 시장에서 유가 흐름,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 지속에 따른 국제 교역 감소, 미국 바이든 신정부의 바이드노믹스(Bidenomics) 정책.
- 경제정책 활용 : 재정·통화·신용정책이 조합된 패키지로 운영하여 대외경제 변수 변동에 적절히 대응, 공룡화된 국영 부문의 적극적 민영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민간부문의 투자·생산 활동 활성화에 정책 초점.
- 성장 잠재력 확충 : 경제·산업 구조 다변화와 현대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구조 개혁 추진



러시아 경제의 향후 과제

- 새로운 글로벌 경제환경(코로나 19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적응 및 극복

러시아 경제가 지난 수년간의 장기침체 늪에서 완전히 벗어나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환경인 코로나 19에 따른 세계 경제의 저성장 저유가, 미국 보호무역주의, 중국과 EU 성장 둔화를 얼마나 잘 극복해 나가느냐에 달림

▲ 단기적 :

- 재정, 통화-신용, 환율정책의 조합된 패키지 운영 : 러시아 거시경제지표의 급변동에 적절히 대응해야 함.
- 정책의 유연성 제고 : 지나친 물가억제와 재정안정에 집착한 경제정책 추진이 러시아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였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함.

러시아 경제의 향후 과제

▲ 장기적 :

- 강도 높은 구조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한 경제의 전반적이고 획기적인 체질개선
 - 러시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총수요에서 총공급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단기간의 경제성과 보다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향하고 있는데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활동 활성화와 생산성 향상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함.
 - 비즈니스 환경 부문, 특히 인허가, 수출입, 투자자보호 부문 등에서 취약점 개선,
 - 산업 제(諸)부문에서 과도한 정부 규제 완화,
 - 러시아 경제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국영기업의 적극적 사유화를 통한 경쟁 환경 조성.
 - 제도적, 법률적, 행정적 측면에서의 비즈니스 친화적(business friendly) 환경 조성 → 기업의 투자 및 생산 활동 촉진 → 성장 잠재력 확충.
- 2020년 이후 러시아 경제가 (+) 성장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 저성장 (연평균 1~2% 수준)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